

2021 새해 새 설계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주력…모두가 잘 사는 미래 완도 건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신년화도로 삼아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백년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에 주력하겠다”면서 신축년 새해를 해양치유산업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해양치유 산업화 원년’으로 정했다.

내년 말 해양치유센터 준공과 더불어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연계한 해양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LA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1000만달러 투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3개사와 약 3000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올해도 투자 유치에 힘써 해양치유병원과 해양치유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해변에서 노르딕워킹과 필라테

해양바이오·관광 거점도시 육성

약산에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

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만전

스, 명상 등을 하며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1만4000명이 참여했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신규 일자리를 1만2600개 창출하고 해양치유 관련 관광객 100만명, 관련 소득 창출 9800억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완도는 다시마·감·미역·톳 등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 대비 40%로 해조류의 본고장으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110억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연구단지를 건립하고 총 400억원을 들여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

2021년 주요 사업

- ▲해양 기후·문화 치유센터 건립
- ▲해양치유병원·해양치유호텔 건립
-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만전
- ▲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
- ▲완도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적극 건의

재 생산시설과 해조류바이오 유효성평가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한다.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생산 시설은 완도산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을 위한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완도 해양바이오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한국 여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신 군수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한 2022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권은 생태 관광의 메카로,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등 동부권은 청정한 바다와 섬의 비경을 감상하는 힐링 관광지로 개발해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도 전역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청산도 구들장능을 중심으로 한 자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시켜 완도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완도 경유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전남 공립대안학교 송강고 명칭 ‘역사 논쟁’ 비화

광산 이씨 등 6개 문중 반발

“송강은 호남지식인 학살 주범”

도교육청·도의회 등에 개명 공문

전남 첫 공립 대안학교인 ‘송강고등학교’의 교명이 역사 논쟁(광주일보 2020년 7월 10일자 12면)으로 비화했다.

광산 이씨, 문화 류씨, 고성 정씨, 창영 조씨, 나주 나씨, 전주 이씨 문중으로 구성된 육문모목회는

“오는 3월1일 개교하는 공립 대안학교의 교명이 정철의 호인 ‘송강’이라며 ‘송강은 가사문학의 대가이지만 기축옥사 때 호남 지식인 1000여명을 학살한 주범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 1호 공립 대안학교의 교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문중은 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 담양군에 보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전남 첫 공립 대안학교 교명 공모를 통해 ‘송강고등학교’로 확정했다.

교육청은 교명에 대해 우리나라 수송을 대표하는

소나무처럼 학생들이 곧고 푸르기를 바란다’는 뜻의 ‘송(松)’과 강물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기를 희망하는 ‘강(江)’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강’은 학교 주변에 흐르는 증암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토사학자들은 중심으로 교명인 ‘송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송강 정철이 당대의 호남 지식인 1000명을 죽으로 내몬 잔혹한 정치인이라, 서인의 당수로 당파 이익에 골몰했다는 주장이다. 송강의 사상과 업적은 뒤로 하고, 배움의 길·인간 관계를 놓고 본다면 전남교육청이 설립하는 공립 대안학교의 ‘교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청원마당에도 송강고등학교의 명칭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20여건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송강은 문장을 꾸미는 재주는 있었으나 인격적으로 본받을만한 인물이 아니기에 송강이라는 이름을 학교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 전남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송강고등학교 명칭은 송강 정철 호를 딴 게 아니라 학교가 들어서 주변 하천의 이름을 딴 것”이라며 “3월 개교한 뒤 학교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교명을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신안 전장포항 상습 침수 벗어났다

목포해수청 50억 들여

어항부지 높이기 완료

국가어항이자 새우젓 전문어항인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이 침수피해 없는 미항으로 재탄생했다.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50억원을 투입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물양장·어항부지 높이기 공사를 진행해 최근 완료했다.

그동안 전장포항은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지역이었지만 어항부지를 약 60cm 높여 침수로 인한 어업인 불편과 걱정이 해소됐다.

기존 준설토 투기장을 정비해 어항부지에 산재한 컨테이너 등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해 깨끗한 어항이 됐다.

공사 진행 중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경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어항 편의 시설도 조성하는 등 항내 환경을 개선해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전장포항은 1991년 1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으며, 국내 새우젓의 60%를 생산하는 새우젓 전문 어항이다.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물양장과 어항부지 높이기 공사를 마친 국가어항 신안 전장포항. <목포해수청 제공>

전장포항이 위치한 임자도는 매년 톨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길고 넓은 대관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勝소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섬이다.

오는 3월부터 임자도 연륙교 공사가 완공되면 차로 방문이 가능해진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깨끗한 어항으로 변한 전장포항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세얼굴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전력”

정찬균 나주부시장

“지역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과 한전공대 개교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호남의 중심 나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하겠습니다.”

제19대 나주부시장에 부임한 정찬균 부시장은 7일 “고향인 천년 목사고을 나주시의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지만 현명한 12만 시민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그동안 전남도와 지방행정 일선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시정 철학에 기반한 나주 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노안면 출생인 정 부시장은 1998년 제2회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기업유지과장·일자

리정책실장·보건복지국장·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